

	보도자료	발신일 : 2025년 5월 18일 (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담당자 : 정주영 보좌관(010-6747-1246), 김소연 선임비서관(010-9727-9697)		
매수	3	별첨
		현장사진 2매

SK해운·H-Line해운 등 해운·수산 25개 노조, 본사 부산 이전 지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에 현장의 힘 보탬 것”

- 해운·수산 산업 노동조합, “이재명 후보, 해운산업의 현실 가장 잘 이해…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은 해운산업의 생존 전략”
- 전재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 “단순 지지를 넘어, 노동이 중심이 되어 바다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약속”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 부산 총괄선대위원장)는 18일(일) 오전, 해운·수산 산업 25개 노동조합이 이재명 후보의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공약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해양 공약의 실현과 해양 수도 부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해운·수산 산업 현장의 노동계 다수가 공동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선언에는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SK해운연합노동조합,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SM그룹대해운연합노동조합, ▲부산통선해상산업노동조합, ▲씨엔에스해상연합노동조합, ▲쌍용양회공업 선원노동조합, ▲동진상선노동조합, ▲동아탱커(주)선원노동조합, ▲국적선해운노동조합, ▲홍아연합노동조합, ▲삼표시멘트해운선원노동조합, ▲씨넷연합선원노동조합, ▲코리아씨페어러스연합노동조합, ▲KSS해운연합노동조합, ▲KMI 해상연합노동조합,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전국해운산업노동조합, ▲해외취업수산노동조합, ▲중앙상선노동조합, ▲고려해운 해상연합노동조합, ▲천경해운(주)노동조합 등 해운·수산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해운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책임 있게 실천할 수 있는 후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두영 SK해운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정치가 아닌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대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해운산업이 뿌리내려야 할 중심지이며, 노동조합은 기업과 지역, 노동자가 함께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광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선박 위에서, 사무실에서, 조타실과 항만 근무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해운산업의 미래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면서,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생존 전략인 만큼 산업과 일자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변화에 기여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권기홍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립 등 해양클러스터 조성하고 연계한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꿈꿔온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해양 전략의 완성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대기업 본사 이전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해양 공약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노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이자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은 노조의 지지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노동이 중심이 되어 바다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약속이자,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인데,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노조 여러분들이 그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더욱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대전환을 앞둔 문턱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부산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이번 지지선언을 계기로 해운·수산 노동계와의 정책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등 해양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집중 유세 현장에서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등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해양 핵심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첨부. 현장사진 2매

